

**아티스트 시네마에 관한 연구**  
**-엘리자-리사 아틸라의 <상담 서비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Artists' Cinema**  
**-Focusing on Eija-Liisa Athia's Consolation Service-**

유 승 연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화이론 석사과정

Yoo seung-yon

Chung-Ang Univ.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e Science, Multimedia and Film,  
Film Theory, Master's degree course**요약**

오늘날 미술관에서 멀티스크린 기반의 영상설치 작품을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갤러리 영화, 전시의 영화, 다른 영화 등과 같은 용어와 담론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많이 사용되는 '아티스트 시네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아티스트 시네마'를 영화이론(Film Theory)과 미술사(Art History)의 맥락이 교차하는 지점에 두고, '아티스트 시네마'가 경유하는 영화적 요소들과 현대 미술적 요소들을 엘리자-리사 아틸라의 <상담 서비스>(1999)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의 단계는 첫째,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프레임 안의 내용', 둘째, 영상 설치 작품을 구성하는 오브제와 작품이 놓인 미술관이라는 '프레임 밖의 맥락', 셋째, 관람자의 시간적, 공간적 경험이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 시네마와 미술관이라는 시스템이 가지는 비평의 지점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I. 서론**

우리는 매일 스크린과 이미지를 통해 세상과 접촉한다. 스크린과 프레임에 관해서는 레브 마노비치(Lev Manovich)와 앤 프리드버그(Anne Friedberg)의 개념과 은유들이 있다. 또한, 영화와 현대미술의 설치 작품에서도 스크린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오늘날 우리는 미술관이라는 특권화 된 장소에서 멀티-스크린 영상 설치 작품들을 쉽게 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갤러리 영화(gallery cinema)', '다른 영화(other cinema)', '전시회 영화(cinema of exhibition)'와 같은 용어와 담론들이 있다. 또한, 비디오 아트 영역에서 스크린을 경험하는 관람자의 관객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최근 각종 출판물과 전시회와 페스티벌에서 '아티스트 시네마'라는 용어가 쓰이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엘리자-리사 아틸라의 <상담 서비스>(1999)를 중심으로 '아티스트 시네마'가 영화이론과 현대 미술사를 경유하는 지점들을 분석하여, '아티스트 시네마'의 위치를 가늠하고자 한다. 분석의 단계는 '프레임 안'의 내러티브, '프레임 밖'을 구성하는 오브제와 미술관 공간, 관람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소결과 함께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추가되는 질문들을 남긴다.

**표 1. Artists' Cinema: flow chart**

Artists' Cinema		
Film Theory	Art History	
Eija-Liisa Athia's <i>Consolation Service</i> (1999)		
in-Frame	out-of-Frame	viewers' experience
conclusion & further Questions		

**II. 아티스트 시네마**

아트 시네마, 아티스트 필름, 아티스트 비디오 등과 같이 최근 많이 사용되는 '아티스트'라는 용어의 사회문화적 등장 배경은 영화로부터는 작가주의 감독, 현대미술로부터는 개념미술, 그리고 미학으로 부터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저자-기능(Author-Function)'의 담론적 맥락으로부터 읽을 수 있다. 한편, '시네마'는 '영화'로 번역되지만, '영화관'이라는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 실제로 멀리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설치 공간은 작은 방처럼, 무대처럼 경험된다. 2007 프리즈 아트 페어는 '아티스트 시네마'의 사례이다. '아티스트 시네마'는 제도적으로는 제 3의 공간, 공공 공간, 필름 페스티벌(film festival) 등과 같이 실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 The Artists Cinema, Frieze Art Fair, London 2007

2008 오버하우젠 국제 단편영화제에서 큐레이터 이안 화이트(Ian White)는 미술관과 영화(관)사이에서 아티스트 필름과 비디오에 관해 생각해 왔고, 객원 큐레이터들과 함께 '상상의 방(imaginary rooms)'으로써 아티스트 시네마를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상업영화에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미술관의 컬렉션에 적합하지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경험에 관한, 다른 방식의 영화(관)이다[1].

### Ⅲ. <상담 서비스> 분석

#### 1. 프레임 안 -내러티브

아티스트 시네마를 프레임 안, 프레임 밖, 관람 경험의 세단계로 분석하기 위해 엘리자-리사 아틸라의 <상담 서비스>를 분석한다. 먼저, 프레임 안의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내용은 젊은 커플의 이혼 과정을 다룬다. 같은 풍경을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분할된 스크린은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은유이다.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나레이터의 목소리에 의해 시작되며, 리얼리티와 메타포로 사이의 은유들로 이루어져 있다.

크리스 아일즈(Chrissie Iles)와의 대화에서 아틸라는 필름과 설치작품을 만드는 것은 이미지, 사운드, 리듬, 라이팅, 캐릭터, 단어들 사이의 링크를 만들고,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러한 접근 방식을 아틸라는 아티스트적(artists')이라 생각한다고 한다[2].

하지만 아틸라의 이러한 작업은 애니와 J-P, 이 두 사람의 관계처럼 분할되고 충돌하는 내러티브이다. 이는 영화적 전통으로 부터는 형식주의 몽타주기법을 계승한 것이다.



▶▶ 그림 2. Consolation Service(1999)

#### 2. 프레임 밖 -설치 공간, 미술관 맥락

<상담 서비스>의 설치 공간의 스크린 앞에는 쇼파가 놓여 있다. 쇼파라는 오브제는 연극적 무대를 만들어 낸다. 공간은 마치 집안 거실 쇼파에 앉아 TV를 보는 듯, 혹은 어둡고, 큰 스크린 때문에 영화관과 같은 공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다. 화면 안의 나레이터처럼 관객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상담 서비스> 작품의 일부가 된다.



▶▶ 그림 3. Consolation Service(1999) installation view[3]

한편, 미술관 맥락(museum context)안에서 무빙이미지는 예술 작품(œuvre)으로써 영화가 미술관에서 상영 및 컬렉션되기 시작하고, 사회적 단체들의 활동이 아카이빙 영상으로 기록되면서 무빙이미지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 1960년로 볼 수 있다.

#### 3. 관람 경험 -증인

'프레임 안'과 '프레임 밖'의 전략을 통해 관객과 작품 사이에는 '선택'과 '간극'과 '갈등'의 공간이 생긴다. 즉, 카메라의 시선과 등장인물의 시선이 스크린을 보는 관객의 시선에 의해 완벽하게 통합되는 할리우드 시스템과는 다른 것이다. 갈등과 개인들 사이의 간극은 로잘린 도이치(Rosalyn Deutch)의 민주주의와 공공 공간에 관한 분석을 보면, 보이지 않는 사회의 바깥 어딘가(somewhere outside the social)에 존재한다[4].

#### Ⅳ. 결론 -남겨진 질문들

오늘날 우리의 지각경험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미술관이라는 제도화된 공간에 이르기까지 스크린과 무관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아티스트 시네마를 영화이론과 미술사의 교차점에 두고, 작품의 사례로 엘리자-리사 아틸라의 <상담 서비스>를 프레임 안의 내러티브, 프레임 밖의 공간 및 관람 경험에 관해 분석했다. 아티스트 시네마는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제3의 공간이다. 이에 영화이론, 미술사, 페미니즘 멜로드라마, 미학 이론들에서 추가되는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Ian White, curator and art critic, London, curator of kinomuseum, "Does the Museum Fail? Podium Discussion at the 53r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Oberhausen," Kinomuseum: Towards an Artists' Cinema, ed. Mike Sperlinger and Ian White, (Cologne: W. König, 2008), pp. 115-155.
- [2] Chrissie Iles and Eija-Liisa Ahtila, "Thinking in film: Eija-Liisa Ahtila in conversation with Chrissie Iles," Parkett 68, (2003), pp. 56-64.
- [3] 엘리자-리사 아틸라 홈페이지(2018년 4월 19일 접속) [http://crystaleye.fi/eija-liisa\\_ahtila](http://crystaleye.fi/eija-liisa_ahtila)
- [4] Connolly, Maeve. "Domestic Therapeutic, and Public Spaces: Consolation Service (Eija-Liisa Ahtila, 1999)," The Place of Artists' Cinema: Space, Site and Screen, (London: Intellect Books, 2009), pp 92-97.